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

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14:00 주최 : 대한의사협회 주관 :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AI예방법, “손자주 씻고 가금류 접촉 피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

AI로 인해 급감한 소비를 회복시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의료계와 식품산업계가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가 20일 '조류인플루엔자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의학계, 수의학계, 보건당국 전문가들로부터 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실제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중론이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AI 감염요인과 예방법을 올바르게 숙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날 첫 번째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원인과 감염경로>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재홍 교수는 “올해 발생한 AI 클레이드는 2·3·2 타입”이며 “전국확산 원인은 초기의 이동제한 조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그 사이 출하되어 퍼져나간 오리와 닭이 문제시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발생한 AI의 유입 추정원인으로 “중국 또는 남동부 아시아 국가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재홍 교수의 <HPAI 발생원인과 감염경로> 발표

로부터 북쪽으로 도래하는 철새의 이동이나 외국인 여행자들 혹은 외국인 노동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 신상숙 팀장의 <조류인플루엔자의 현황 및 대책> 발표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발표한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 신상숙 팀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AI 인체감염 사례는 전

세계 14개국에서 382명이 발생했고 241명이 사망했으며 국내에서는 올해 42개 농장에서 AI 양성 판정이 났고 서울 등 대도시까지 확산돼 고위험 대상자가 1만6975명 가량 추정된다.”며 “AI 바이러스는 조류 유래 바이러스이므로 인체감염이 매우 어렵지만 무지와 방역부재 상태에서 감염동물과 고도 접촉한 사람에게서 일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예방과 치료를 위한 수칙을 올바르게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AI 발생시 감염방지를 위한 필수 이행조치로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여, 예방접종, 개인보호구 착용, 인체감염 예방교육 등을 들 수 있다며 항바이러스제는 예방책이 아닌 증상 초기시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장종사자, 살처분자, 고위험 대상자들에게 75mg을 1일 1회 7일간 투여하도록 돼 있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해야 한다”고 밝히고 “고글, 마스크, 장갑, 덧신, 보호복으로 구성된 개인보호복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이상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삼성의료원 건강의학과 박승철 박사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의 예방과 치료> 발표

마지막으로 삼성의료원의 건강의학과 박승철 박사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의 예방과 치료> 발표를 통해 “손이 AI 바이러스는 물론 기타 세균·바이러스의 주요한 감염경로인 만큼 항상 올바르게 손을 닦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특히 손이 코·입 등 호흡

기관과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AI환자가 298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질병으로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 의료수준, 교육 차에 따라 발병률은 크게 차이가 날 것이지만 국내의 의료수준을 감안하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 발표에 이은 제2부 패널토의에서는 발표자와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과 관련해 의협은 “AI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패널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제2부 패널토의에서는 발표자와 참석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철새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다.

현재 10일간 AI 의심신고가 없는 점은 AI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드는 희망적인 소식이나 본원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이후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임현술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현재까지 증상이 있는 발생환자가 없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지만, 수인질환의 예방은 동물에서 발생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오수 검역원 질병관리과장 |

AI 감염성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양축농가와 살처분 담당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예방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최근 추축 및 과장성 보도가 만연해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 모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언론사에서는 사실만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에서는 최근 AI의 토착화에 대해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AI 발생시 발생지 주변 3km까지 모든 가금류를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살처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용어의 사용은 적절치 못하다.

올해 AI 국내 전파 요인도 야생조류 예찰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AI 바이러스 혈청형을 발견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미국 등과 같이 조류 폐사시 검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방차원에서 야생조류 관람시의 상세 지침이 필요하며 조류의 판매·구입시 기록 일지를 철저히 작성한다면 역학조사시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AI 발생의 경우 초동방역이 미흡해 전국으로 확산됐던 만큼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초동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손씻기 요령, 마스크 착용,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국민 교육·홍보가 잘돼야 할 것이다.

특히, AI 환자 발생 시를 염두에 두고 의료진과 연계한 모의훈련 및 행동지침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하며 이는 모든 호흡기 질병의 예방차원이라고 생각한다.